

## 제4절 생업활동과 농업기술

### 1. 생업활동과 노동형태\*

#### 1) 생업활동

전근대사회의 산업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농업경영을 통해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농업 외에 다른 산업은 부차적이었다. 순천 지역의 산업활동은 조선시대 농업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촌사회의 인구증가와 아울러 분화를 촉진시켰고, 그로 인한 노동형태의 변화도 일어났다. 따라서 산업활동의 모습은 『체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토산품의 종류를 분석하거나, 이 지역의 장시에 출품되는 물품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활동이 어떠한 노동형태하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까 한다.

산업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이들 생산활동의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노동의 형태가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순천지역의 인구는 조선 초기의 경우 『체종실록지리지』를 통해 알 수 있고, 후기의 경우는 『허지도서』·『호구총수(戶口總數)』 등의 기타 읍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체종실록지리지』에서 순천도호부는 호수 467호, 인구 2,61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초기 전라도 중에서 전주목(5,829명)·무진군(4,182명)·나주목(4,026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낙안군은 306호, 1,439명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순천의 경우 『허지도서』에 4만 1,869명 『호구총수』에 4만 6,330명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낙안의 경우 각각 8,069명과 8,44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 초기와 후기에 걸쳐서 엄청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수는 일제시기에 편찬된 『충평속지』에 10만 7,98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sup> 즉 조선 후기에서 일제시기에 2배 이상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인구증가의 현상은 순천지역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국 각 지역마다 보편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 요인은 전반적인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의 발달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산업활동의 주체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되었고, 한편으로 농촌사회의 분해작용과 아울러 노동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의 산업의 주체는 농업이다. 『체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순천도호부의 전체 호수는 467호인 데 비해 토지는 논과 밭을 합쳐 7,315결이고 낙안의 경우 각각 306호, 2,016결이다.<sup>2)</sup> 순천의 경우는 1호당 토지 소유면적이 평균적으로 약 16결인 데

\* 제4절 1·2항목은 이종봉(李宗峯) 집필임.

1) 順天大 南道文化研究所, 『昇平續誌』(『昇平誌』 남도문화연구자료총서1, 1988), 55쪽.

비해 낙안의 경우 약 7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근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재지사족·품관층·향리층 등에 의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토지소유 농장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순천의 경우도 위 기록을 통해볼 때 대토지를 소유한 민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토지소유자는 노비를 통한 직영을 하거나 전호를 통해 지주제 경영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순천지역의 대토지소유자는 조선 후기에도 다수 존재하여 지주제 경영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전기 순천의 평균 토지소유 현상은 세종 때의 기록에서 “일반 농가의 경지면적은 전국적으로 보아 10결 이상의 소유자는 부유한 사람이고 3~4결을 가진 자도 오히려 적었다.”<sup>3)</sup>고 하는 것과 “소민의 토지는 불과 1~2결을 가진 자가 많다.”<sup>4)</sup>고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이 지역 농민층의 토지소유가 *체중실록지리지*에 나타나는 평균 결수와는 달리 1~2결을 소유한 경우와 함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층이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조선 초기 일반 농민의 토지소유 비율이 7/10 정도인데, 토지가 없는 경우는 이웃·친척의 토지를 병작 경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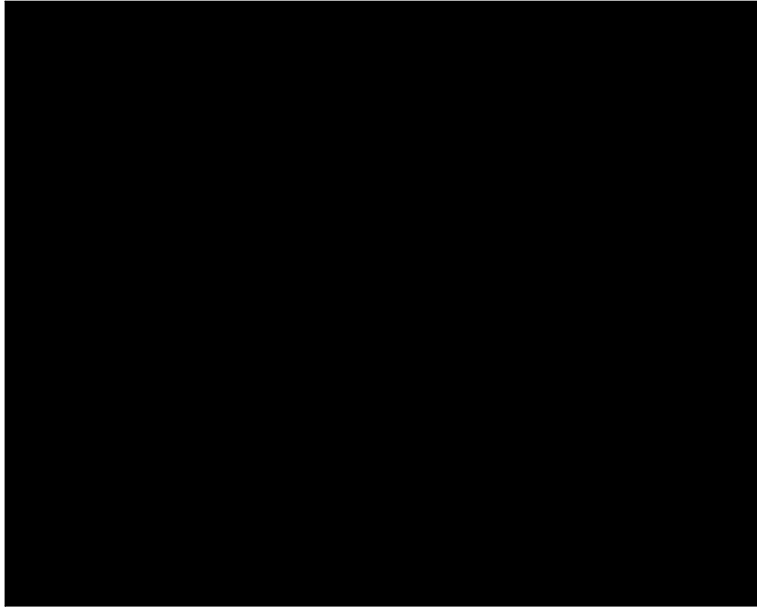
이는 후기에 이르면서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주제의 발달과 아울러 토지의 총결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의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는 더욱 증가하였다. 실제 *혁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따르면 “호남지방의 경우 3/10 정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世宗實錄地理志*, 順天都護府.

3) *世宗實錄* 卷83, 世宗 20年 11月 庚子.

4) *世宗實錄* 卷112, 世宗 28年 6月 甲寅.



중평지』에 기록된 순천지역 토산물

따라서 순천지역에는 농민층, 무전농민·자소작농민·지주층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층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상정된다. 이외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주로 수산업을 통해 경제생활을 도모해가는 계층, 그리고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계층도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먼저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농민층은 주곡작물·특산작물 등을 재배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주곡작물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농서류 등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농서의 편찬목적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촌에 보급하고, 백성의 삶과 직결되는 작물의 주요 품목의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농서에 기록된 것이 주요 주곡작물이라 할 수 있다. 『동사직설』에는 마(삼)·도(벼)·대맥(보리)·소맥(밀)·속(조)·서(기장)·직(피)·호마(참깨)·교맥(메밀)·소두(팥)·대두(콩)·녹두 등이 주요 목차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작물은 조선 전기 민의 경제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곡작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주로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천지역의 주곡작물의 생산활동은 『체중실록지리지』에 나타나는 주곡작물의 사례에 대한 정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전라도의 경우 오곡(벼·보리·콩·조·기장)에 관한 언급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순천도 오곡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 농민들은 주로 오곡을 주곡작물로 재배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 후기 전반적인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주곡작물의 상품화가 점차 증가하였다. 주곡작물의 상품화는 18·19세기 순천지역의 장시에 거래되는 품목을 통해 그 양상을 알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거래 품목을 보면 쌀·보리·콩 등이다. 이는 쌀 등의 주요 주곡작물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18·19세기 전라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등의 주곡작물이 모든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주곡작물의 재배와 아울러 특산(원예)작물의 재배도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참국사기』에 마늘·마·밤·산도·계행·감밀 등이, 『항약구급방』에는 고

려조의 과실로서 밤·잣·배·대추·앵두·개암·비자·능금·오얏·복숭아·감·호두·포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낙안군의 경우 표고·송이·유자·감·대·대살·치자·닥·차·꿀·복령 등이 재배되었다.<sup>5)</sup> 『체중실록지리지』 순천도호부에 나타난 주요 작물은 오곡 외에 뽕나무·삼·밤·닥나무·왕골 등과 토공(공물)으로 감·꿀·석류·매화·꿀·밀·대추·차·목화 그리고 약재로 인삼 등이, 낙안군은 오곡 외에 뽕나무·삼·모시·왕골·목화 등과 토공으로 꿀·밀·석류·유자·매화 등이 재배되었다.

이와 같은 작물의 생산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린증승평지』의 토산 조 중에 수산물을 제외하면 “모시·자기·유자·석류·대·죽전(대살)치자·매실·생강·표고버섯·송이버섯·배·밤·살구·복숭아·능금·대추·감·비자·감류(甘榴: 석류의 일종)·오얏·빙·은행·앵두·백영도(앵두의 일종)·모과·개암·해송자(海松子)·호도·포도·산초·딸기·감태(甘苔)·전·능인(菱仁)·자총(紫蔥)·마늘·양파”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품목이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전기에 비해 다양한 작물이 재배·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 후기에 일본·중국으로부터 고구마·감자·옥수수·담배 등이 도입되어 구황·상품작물로서 식량부족현상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는데, 아마 순천지역에도 이들 작물이 재배·생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들 농민층은 어떠한 형태로 산업경영을 도모하였을까. 이는 조선시대 농민층의 노동형태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무전농민층은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에 흡수되어 전호나 외거노비 등으로 다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호농민층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족노동에 의해 토지를 경작하였을 것이다. 또한 1~2결 정도나 그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농민층의 경우도 대체로 가족노동을 통해 농업경영을 했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소농민층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던 두레란 형태의 공동노동을 통해 일손이 서로 바쁠 때 상호부조하는 형태를 통해 농업경영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이양법 등의 새로운 농업기술은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소규모의 가족노동력만으로는 노동수요를 해결할 수 없어, 모심기나 김매기 등에 공동의 노동조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를 집대성하였는데,<sup>6)</sup> 경상도·전라도편을 보면 전라도지역의 경우 두레가 농촌사회에서 성행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나주지역의 경우는 모내기 등을 공동으로 한다고 조사되어 있고, 진도의 경우는 이식·수확의 시기에 공동으로 노동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지역의 소농민들은 가족노동과 두레라는 공동노동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반 농민층 중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농민층의 경우는 농업경영 방법의 개선으로, 경작지를 확장하고 상업적 농업을 함으로써 임노동자의 고용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무전농민 혹은 토지가 적어 생활이 빈궁한 빈농층을 연고(年雇: 1년 계약 노동자)나 계절고·일고(日雇)로 고용해 농업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부족한 가족노동을 보충하였다.

수공업에 종사하는 농민층도 다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수공업은 관청수공업과 민간수공업으로 분류된다. 전기는 민간수공업보다 관청수공업이 발달하였으나, 후기에는 오히려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였다. 그렇다고 조선 전기부터 민간수공업이 발달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증보문헌비고』에서 조선 후기 “우리나라 백성들이 빈곤하여 집에는 남는

5) 許祥萬, 『順天地域 農業發達の 史的考察』, 『甯道文化研究』1,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85, 167~175쪽.

6) 三成文一郎·有働良夫,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慶尙道·全羅道)』, 朝鮮總督府, 1905.

재산이 없고, 단지 받을 갈아 베를 짠 옷을 입으므로 비록 공예·상업으로 업을 삼는 자가 있어도 그것은 기껏해야 토목피혁의 기구나 마사·미곡 정도를 사용해서 서로 교역, 겨우 자급 자족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민간수공업은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교역하는 전업적 수공업의 단계라기보다는, 농가부업으로 생산하여 물물 교환하는 가내수공업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관청수공업은 중앙의 공조를 비롯한 각 사와 지방의 각 도·읍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형국대전』에 따르면 “중앙의 각 사에 경공장은 130여 종 2800 명이고, 8도에 소속된 외공장은 27종 38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중앙수공업이 장인수는 적지만 품목의 생산은 130여 종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중앙수공업이 지방수공업에 비해 분화·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수공업의 수준은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중앙보다 대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순천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을 것이다.

『형국대전』 공전(工典)에 따르면 전국 3,650여 명 중 전라도 장인은 771명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오늘날 전라남·북도로 다시 분리한다면 전라남도의 경우 354명의 장인이 수공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이 중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장인을 가진 직종은 제지업을 생산하는 지장인데, 전라남도의 경우도 101명으로 전체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순천·낙안 지역은 전체 각각 24명·11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다. 순천은 야장·공인·시인·지장·석장·목장·피장·칠장·사기장·유장·갑장·유구장 등의 12개 공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 사기장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2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다. 낙안은 야장·공인·시인·지장·석장·목장·피장·칠장·유구장 등의 9개 공장이 존재하는데 지장이 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그외는 8개 공장에 모두 1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 경우 12개 공장 중 사기장을 제외하고는 1~2명의 장인이 소속되어 있어, 분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낙안의 경우도 그러한 양상은 마찬가지였다. 또 『체종실록지리지』에 순천은 1개의 자기소와 3개의 도기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순천지역 농민층은 수공업품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해가고 있었다.

한편 조선 전기 발달했던 관청수공업은 후기에 이르러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첫째는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농업과 결합되어 있던 농촌 가내수공업과 전업적 수공업의 발달이 촉진되면서 약화된다. 둘째는 15세기 관청수공업에서 진행되던 무상부역 노동형태인 신역제(身役制)에 의거한 번차장제가 장인가포제로 이행되었다. 이에 수공업자들은 여전히 수탈을 받고 있지만 종래보다는 독립적인 수공업자로서의 경제적 및 신분적 독립성을 가지고 경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는 관청수공업 기구와 장적법의 해체는 중앙 관청수공업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중앙 관청수공업의 변화는 지방 관청수공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방 관청수공업은 종전의 공물과 지방관리들이 국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으나 이도 대동법의 실시로 공물과 진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지방관리들의 사치품을 만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당시 지배층들은 늘어나는 수공업품의 수요를 민간 수공업자에게 의존함으로써 민간수공업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넷째로는 관청수공업장, 특히 지방 관청수공업장에서 개인수공업자들에게 품값을 주고 고용 노동제가 적용된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8세기에 들어와 하나의 통례로 되어 『태전통편』 등의 법전에 기록되어 제도로 고착되었다. 이는 종래의 정규적인 부역노동제도가 임시

적인 고용노동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청 수공업의 해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민간수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민간수공업의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 순천지역도 고용노동에 토대를 둔 민간수공업이 점차 발달하였을 것이다.

한편 순천지역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바다와 관련된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염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민들이 그들이다. 염의 생산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염업을 장려하고, 염법을 공포하여 염세를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것은 『고려사』에 616개, 『체종실록지리지』에 1,356개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 염전수를 비교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전라도지역의 경우, 고려 후기에 126개였던 것이 조선 초기에 143개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전라도지역의 염전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순천지역에도 해당되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전라남도 중에 나주는 35개, 순천은 9개, 낙안은 1개의 염소가 존재하는데 이들 지역의 납공액은 나주는 2,590석, 순천은 409석이었다. 따라서 순천지역에도 염을 전업적으로 생산하는 민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농업과 더불어 경제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이 분명하다.

다음은 어업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순천지역의 어업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계층이 이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조어업(釣漁業)·망(網)어업 등은 이미 원시시대부터 행해졌고, 어량(漁梁)어업은 고려시대에 행해진 주요 어업의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어업은 널리 보급되었다고 파악된다.<sup>7)</sup> 그것은 『체종실록지리지』 영광군조에 “봄과 여름 사이에 여러 곳의 어선이 모두 이곳에 모여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관청에서 그 세금을 받아서 국용에 이바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이나, 진중동국여지승람』 고성군조에 “삼을 심어 실을 뽑지 아니하고 꼬아서 그물을 만들어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광에서 어업이 행해졌다는 것은 순천지역에도 이와 같은 어업이 행해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어량어업이 중심인 순천지역에는 조선 전기 어떤 종류의 어종이 어획되었을까. 『체종실록지리지』에서 순천지역은 “상어·은어·조기·전복·홍합·미역·가사리·붉은큰새우·오징어” 등의 9종의 수산물, 낙안지역에는 “홍합·미역·가사리·붉은큰새우·오징어” 등 5종의 수산물, 낙안지역에는 “홍합·미역·가사리·붉은큰새우·오징어” 등 5종의 수산물이 기록되어 있다. 이 수치는 전국의 어종 45개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전남지역의 주요 어종(은어·숭어·상어·조기·절어)과는 비슷한 어종들이 어획되고 있다. 이는 전남 및 순천의 어업이 만(灣) 가까운 얕은 바다 등 육지에 근접한 연안에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수어 및 산란을 위해 하천을 거슬러 올라오는 어류, 즉 내수면 어업의 비중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또한 『진중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순천지역에 “조기·숭어·농어·병어·은어·도루묵·전복·굴·홍합·미역·김·문어·오징어·왕새우·낙지·해삼” 등이, 낙안에 “숭어·민어·병어·굴·오징어·낙지·왕새우” 등이 어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충평지』에는 “조기·숭어·농어·문어·병어·낙지·복어·굴·대합조개·홍합·자하·게·해삼·미역·해태·홍어·상어·삼치·준치·시어·편어·전어·도미·감합·죽어·웅어·설어·가좌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또한 조선 전기보다 후기에 보다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7) 노성태, 『全南地方의 人口와 産業』, 『陞羅南道志』 제4권, 전라남도시사편찬위원회, 1993, 119쪽.

8) 허상만, 앞의 논문, 120~122쪽.

이 같은 어획물의 증가는 당시 어업기술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 순천지역민은 어획물을 잡아 식생활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조선 후기 발달된 지방장시를 통해 이를 파는 전업적 어업을 하는 계층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8·19세기 순천(8개)·낙안(3개)의 장시에 수산물이 주요 유통산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